

준비하는 죽음을 생각하며



김아리내(서울여대 기독교학과 4년,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3기)

요 며칠 사이 장례식장에 다녀올 일이 참 많았다. 대부분 친한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다녀온 일이지만, 장례식장을 다녀온 후, 인터넷에서 기사를 보다가 부고 기사가 왕왕 화제가 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지난 5월 5일, 가수 백설희 씨의 사망이 기사화 되었고, 바로 오늘, 5월 20일의 기사에도 성호그룹 회장인 송재성 씨의 사망을 한 편에서 다루고 있었다. 또 유명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은 특종 기사로 다뤄지기도 한다. 우리가 매일 보

는 신문에서, 주변 사람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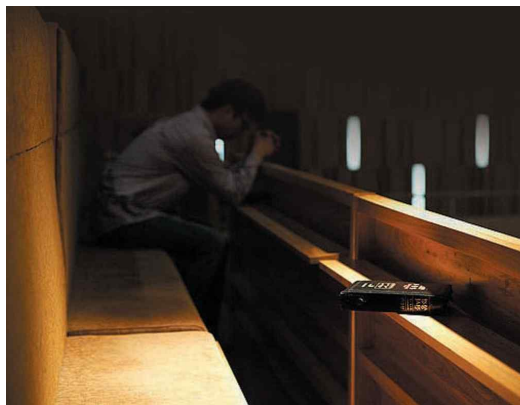
통해서 자주 접하는 만큼 '죽음'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며 친근한 존재이기도 하면서 청춘을 만끽하고 있는 이들에겐 멀게 느껴지는 대상이다. 또 오래 살고 싶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생각하면 죽음은 결코 유쾌하게 맞이할 수 없지만, 그

렇다고 해서 자유의지로 거부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삶의 완성을 위한 하나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친근하기도 하고 막연하기도 한 죽음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무의식적으로 개인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선물로 부여 받은 삶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 시편 90편 12절을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라고 기자는 이야기 하고 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남은 날을 기억하고 세어 보아 지혜롭게 시간 관리를 해야 함을 깨달을 수 있었다. 무의식 중에 우리는 남은 시간이 무한하다 생각하지만, 말씀에 명시되어 있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사실처럼 우리에게 남은 날이 한정되어 있다.

우리에게는 종종 우리가 이루고 싶은 꿈과 계획은 거대하게 세우지만 그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하지 않는 모습이 발견되곤 한다. 간단히 과제나 운동을 하기 전에도 '내일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차일





청춘의 때에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삶은 유쾌하지 않게 느껴진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며 사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은 없다.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능을 갈고 닦으며, 탁월함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1분을 산다면, 삶을 불평과 불만으로 바라보며 살기 보다는 감사와 생명력이 생길 것이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맡겨 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청지기가 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허락하신 삶 가운데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피일 미루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과제나 공부를 위한 시간에 있어서도 막연한 내일을 꿈꾸며 사는 우리에게 멀게만 느껴지는 삶의 마지막 순간은 준비하기 쉽지 않은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10분이, 아니 1분, 1초가 이 삶의 마지막 순간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임을 깨달을 때, 시간이 선물임을 깨닫고 새롭게 은혜의식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맞이하는 고통과 인내의 순간을 원망하기 보다는 사랑하고 아끼며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